

사실의 과장과 왜곡

언론보도의 ‘분장’과 ‘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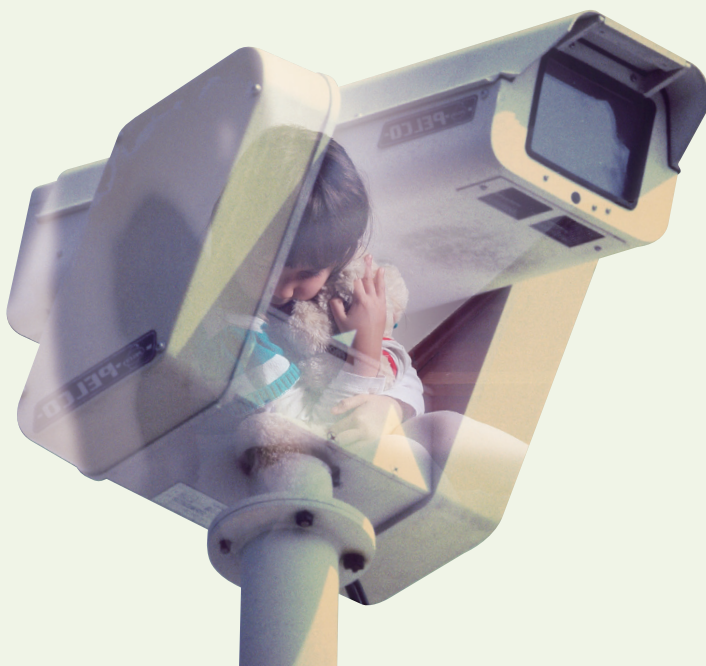


조원철

변호사

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오래 전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출신 여성 MC가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한 것을 두고 한 출연자가 분장이 아니라 변장을 했다고 놀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분장은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인물의 용모를 그 프로그램이나 배역의 내용·성격에 맞추어 꾸미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화장보다는 진하지만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변장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꾸며 다른 사람으로 오인케 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 보도에서의 과장된 사실과 왜곡된 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차이도 비슷하지 않을까. 과장된 사실이 분장에 해당된다면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사실은 변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7월에 한 공중파 TV의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때리고 학대하였다는 보도가 나갔다. 방송사는 그 보도에서 유치원 내 CCTV 영상을 함께 내보냈는데, 일부 영상을 실제보다 빠른 속도로 재생하여 방송하였다. 문제의 장면은 교사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원생을 밀어버리거나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었는데, 정상적인 재생속도에서는 교사가 원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도된 영상은 교사가 다소 강하게 폭행하고, 원생들이 폭행으로 갑자기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언론보도에서 사실의 과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화젯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 문제는 허위보도, 그것도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허위보도이다. 위에서 소개한 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유치원 원장이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문제의 영상 보도가 사실의 과장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정 보도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포함하여 4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왜곡(歪曲)의 사전적 뜻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Distortion에 해당하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모양을 찌그러뜨린다는 뜻이다. 악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빠르게 재생하면 상대방을 때리려는 것처럼 보이고, 가볍게 꿀밤을 먹이는 행동도 머리에 큰 충

격이 갈 정도로 폭행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심지어 연인의 얼굴을 손으로 사랑스럽게 감싸는 행동도 뺨을 때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당 방송사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르게 편집해야 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일부 장면을 반복적으로 재생한 점을 들어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방송사가 재생 속도를 빠르게 편집한 것은 단지 행위의 속도 증가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력의 강도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여기서 사실의 왜곡이란 사실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하지만, 원래의 내용이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조작해 낸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다를 바 없다.

그 방송사는 어떠한 의도로 CCTV 영상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여 보도를 했을까. 우선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다는 보도 내용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실감나게 전달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때렸다는 것은 분명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도 가치가 있는 사건이지만, 워낙 폭력적인 사건들에 무감각해졌을지도 모를 시청자들의 뇌리에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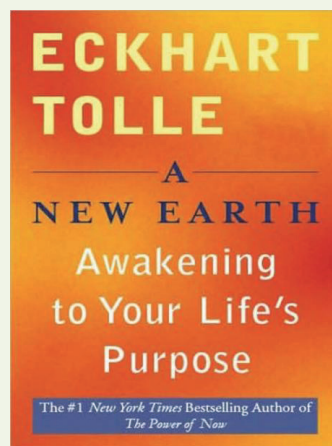
이로써 그 방송사나 관계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자나 편집자로서는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성취감 내지 만족감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방송사는 시청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이익만으로는 왜곡된 보도의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다. 단순히 사실의 과장 정도가 아니라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편법을 썼고, 그러한 편법은 곧 들통이 나거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도 한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말이다. 언론의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전달에 있다. 요즘과 같이 언론사별로 정치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커다란 괴리가 있는 시대에 중립성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실 보도에 있어서 객관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룰이다. 그러한 기본적인 룰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건전한 여론 형성은커녕 서로 적대적인 대립과 다툼밖에 남을 것이 없다. 이미 우리나라 언론계의 현실이 오래전에 그러한 수렁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견해가 아닐 것이다.

서구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에크하르트 톨레(Eckhart Tolle)는 그의 저서 『A New Earth』(국내에서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출판되었다)에서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가 에고(Ego)에 있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 아주 어려서부터 쌓여 온 생각과 감정,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입된 관념들로 이루어진 에고가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에고가 없음을 뜻한다고 한다. 부처님이 가장 경계하신 아상(我相)이라는 것도 에고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에고를 ‘나’라고 믿고 에고의 지배를 받지만, 실상 에고 자체는 실체가 없는 불안정한 것이기에 에고는 항상 불안해하고 외부의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 에고의 대표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나와 남을 비교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기고자 하는 것은 에고의 욕구이다. 화는 불평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찾아오는 감정이다. 에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과 관점을 객관적인 사실과 혼동한다. 나아가 에고는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 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에고는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데 달인이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믿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마음의 기능장애이다. 에고는 인류 공동의 기능장애라고도 할 수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저서
『A New Earth』 표지
(출처 : 위키미디어)

부정적인 감정들은 충분히 마주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에 고통의 잔재를 남긴다. 그 고통의 잔재들이 모여 하나의 에너지 장을 형성하는데, 에크하르트는 이를 고통체(Pain-body)라고 한다. 고통체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집단적으로 겪은 고통도 그곳에 함께 한다. 예고와 마찬가지로 고통체도 자신의 생존을 목표로 하기에 주기적으로 먹이, 즉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는 자신의 기존 에너지와 잘 맞는 에너지, 즉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고통체가 결코 소화해 낼 수 없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고통체는 주위에 갈등과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무거운 고통체를 지닌 사람들은 때론 어떤 사명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가 되기도 하나,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애초의 사명에 반대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언론과 방송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의 고통체에 음식을, 에너지를 제공한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폭력을 구경하면서 사람들은 내재된 고통체를 만족시키고 더 강화시킨다. 결국 언론사는 뉴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즉 고통체를 위한 먹이를 파는 셈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의 보도를 본 수많은 시청자들은 해당 유치원과 교사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엄청난 양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자신들 내부에 축적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내부에 자리 잡은 예고와 고통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며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온라인 기사에 독자

들이 댓글로 자신들의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태반의 댓글이 의견 제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의 배설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은 언론보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5년간 TV를 시청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TV를 끄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면서 교황은 누구나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건강해질 수 있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교황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언론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보탬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내부의 예고를 만족시키고 고통체를 키워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였던 것은 아닌지를